

# '위기의 석유화학' 자발적 사업재편 '당근과 채찍' 든 정부

'선 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

'무임승차 기업 지원 제외'

공급과잉 해소 NCC 최대 370만t 감축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경쟁력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려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업체 간 눈치 보기 양상이 지속되면서 위기가 심화하자 구조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석화 업계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업계에 향해 질책성 발언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행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발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업계가 구조조정에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백화점 나열식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자구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 정도도 다를 수 있어 거기에 맞춰(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차등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들도 자구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업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업계에 270~370만t 규모의 NCC(노후탄분해시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 1천470만t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같은 감축 규모는 최근 업계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자율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도출된 수치로, 업계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디가 얼마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석유화학 기업 10곳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 자발협약식을 열고 추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석화 구조개선 방침과 방향을 밝히는 일종의 룰 세팅(rule setting)으로, 향후 로드맵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난해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개편을 통해 석화업계의 생존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설비 감축은 선택과 집중이 기본이고, 동시에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 미래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업계·금융권·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M&A, 금융, 고용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국회 노동위, '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공방

野 "숙의·토론 없이 민주당 막무가내" 與 "토론 있었는데 '국힘' 스스로 퇴장"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토론 없이 밀어붙인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본인들이 퇴장해 놓고 함부로 말한다"고 맞받았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다"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는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관"이라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이 2조를 논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것

이 때 무책임한 행태"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함께 드러냈다.

/김진수 기자

## 정준호 "국토부에 호남고속철 증편 건의"

정가 프리즘

호남선 KTX의 배차 부족 문제가 지역민들의 핵심 관심사항으로 등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사진)이 19일 열린 국토위 결산에서 "호남 고속철도 예매 전쟁,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호남 고속철도 배차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오송 복복선 완공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대안으로 오송-광주 송정 구간 증편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 장관도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고 "배차 간격이 길어서 하루에 광주, 서울 일 2가지를 수행하기 어렵다", "열심히선 정 의원이 국토위에 계셔서 다행이다.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김진수 기자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출범식 개최

오늘 오후 2시 본청 당대표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

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대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며 특위에서는 서삼석 위원장과 이병훈·이원택·김성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감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